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수도 분야 지방공  
기업 고객만족도 도내 1위

부안군은 상수도 분야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전국 383개 기초 및 광역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상수도 분야는 수돗물 품질부터 요금 부과까지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를 무작위로 조사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신속한 현장 확인 등으로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3년도 평가에서는 도내 1위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도내 1위 명성에 걸맞도록 현장행정,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고객중심 공기업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무장면 실종 70대  
합동 수색으로 생명구해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경, 고창군 무장파출소에 원촌리 금곡마을에서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출소는 신고 접수 즉시, 무장119안전센터와 무장면사무소에 협조를 구했다. 밤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저체온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해 한시가 급한상황, 무장면사무소에서는 무장자율방범대, 주민들이 합동으로 구역을 나눠 수색에 나섰고, 마을에서부터 예상 이동경로에 있는 CCTV를 정밀 분석했다. 또한, 무장면을 비롯한 인근 면(아산, 해리, 상하, 공음, 대산, 성송)에 문자 발송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집중 수색 7시간여만인 18일 새벽 3시50분경 거주지에서 13km가량 떨어진 상하면 장호리 동촌마을 비닐하우스에서 한 주민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선정

고창군, 교육부 주최 특성화 부문 컨소시엄형으로

고창군이 교육부에서 주최한 '202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특성과 부문에 컨소시엄형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컨소시엄을 구축해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 학진흥원,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가

함께 '전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로컬배움터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의 희망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역과 진흥원, 도시 간의 상생형 학습벨트 형성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사제로 주목받아 선정됐다.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

고 실무협의회 운영, 광역·진흥원·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 창의적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은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로컬배움터를 추진한다. 지역 평생교육 강사를 활용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이동식 배움터 체험 학습버스와 로컬공방을 운영한다. 모두에게 배움의 소외 없이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정복형 로컬-MOOC 학습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강사들에게도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새만금 어업피해 최소화 집중

부안군-해양환경공단,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과 협력해 관할 해역의 해파리 성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를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파리는 어구 손상, 혼획으로 인한 수산물 품질 저하, 발전소 취수구 막힘,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종으로 폴립 1개체가 최대 5000마리의 성체로 증가할 수 있어 폴립 제거사업을 통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파리 피해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량발생 의심지역을 탐색하고 그중 폴립 대량 서식지를 발굴해 수중 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군 관할 해역의 해파리 대량 발생 원인으로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대량 증식된 해파리 유생(폴립)이 해파리 성체로 성장 후 새만금방조제 해수유통에 따라 연안해역으로 배출돼 대량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새만금방조제 내측 관할해역 일대 해파리 폴립 제거작업은 금년도 해파리 대량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새만금방조제 내측은 해파리 폴립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며 "폴립 제거를 통해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파리 폴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개장 유골 화장 확대 운영

4월 4일~7일까지

정읍시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 증가에 맞춰 서남권 추모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청명·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평상시 1일 8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증명서를 발급 받고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는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 접속 '화장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화장예약은 방문 접수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고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화장예약은 화장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

면 4월 5일에 화장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3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고창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관내 23만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며, 고창군청 중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4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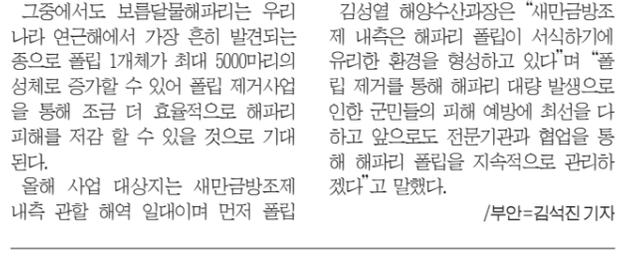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전화 상담 등을 사전 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이달부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관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안군 4H본부(회장 허태열)가 협업으로 파쇄단을 구성했으며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 지원(고령농·면적 1500㎡ 이하),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 및 배송, 파쇄 불가한 영농부산물의 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 관내 40개소에 불법소각 방지 현수막 개찰과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한다.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소득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되고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영농부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18일 정읍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동복지시설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정읍시-경찰-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정읍시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동복지시설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경찰·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통학버스 33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및 차량의 외관 △조명, 타이어, 브레이크 등 차량의 구조·장치적 부분 △브레이크,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관련 법 검토 후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